



자이로  
마자가르디 장로  
칠십인 정원회

# 어머니의 가르침



**제**가 자라는 동안, 우리에게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, 저의 어머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지폐(가장 구김이 적고, 깨끗한)를 골라 우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드리곤 하셨습니다.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다. “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어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,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. 저의 어머니께서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.

어머니는 또한 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.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. 우리 옆집에서는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. 가끔 그 과일이 담장을 넘어 우리 집 쪽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. 한번은 제가 그 과일을 따서 어머니에게 가져다드렸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며 “그건 우리 것이 아니란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저는 “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집



담장 안에 있었다고요!”라고 말했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 번, “그건 우리 것이 아니란다.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, 저를 데리고 옆집으로 가셨습니다. 우리는 옆집 사람에게 과일을 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. 어머니는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, 그것을 정직하게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

## 부모님께 물어보세요!

- 부모가 되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?
-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?
- 무엇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나요?
- 매일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?
-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복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?
-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- 어떤 질문을 또 해 볼 수 있을까요?
- 하루 동안 여러분의 엄마, 아빠의 도우미가 되어 보세요!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일지에 적거나 그려 보세요. 부모님이 해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세요.

아닐지도 모릅니다. 아니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도 여러분은 그분들로부터 정직, 책임감, 자립, 근면과 같은 참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원리들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. ■